

2013년 12월 경제동향*

김성태(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)

요약 및 평가)

- ◎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 - 10월 중 산업생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, 내수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
 - ※ 광공업 및 서비스업생산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, 출하도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
 - ※ 민간소비의 부진이 완화되고 설비투자도 증가로 전환되는 등 내수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 - ※ 아울러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기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국내기계수주, 건설수주 등 주요 선행지표가 개선되면서 향후에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
 - 다만,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어 아직 경제 전반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
 - ※ 11월 중 수출은 IT 제품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최근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
 - ※ 또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기준치를 하회하는 가운데, 한국은행 경기실사지수도 하락하면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

* 이 글은 「KDI 12월 경제동향」을 발췌 요약한 것임.

1)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모든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임.

- 경기 :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나, 생산과 출하가 모두 확대되면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
 - 10월 중 서비스업생산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공업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며 산업생산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
 - ※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업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.7%의 증가율을 기록
 - ※ 광공업은 반도체 및 부품이 일시적으로 부진하였으나, 자동차가 파업 종료에 따라 생산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전년동월대비 3.0%의 증가로 전환
 - ※ 이에 따라,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일시적으로 부진했던 전월(73.4%)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75.6%를 기록

[그림 1] 광공업생산지수 및 서비스업생산지수(3개월이동평균)



- 10월 중 생산자제품 출하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2.9%의 증가율을 기록

- 그러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어 아직 경제 전반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

※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 제조업 BSI(계절조정) 실적치 및 전망치가 각각 전월대비 3p 및 4p 하락한 80 및 82를 기록하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, 경기 회복세가 아직까지는 기업부문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◎ 소비 : 민간소비는 관련 주요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

- 10월 중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.6%가 증가하여 전월(-1.2%)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으며,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1.3%의 증가율을 기록

※ 부문별로는 준내구재가 부진하였으나, 내구재와 비내구재는 각각 승용차 및 음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

- 소비재생산 및 서비스업생산도 전년동월대비 각각 4.3%와 2.7%의 증가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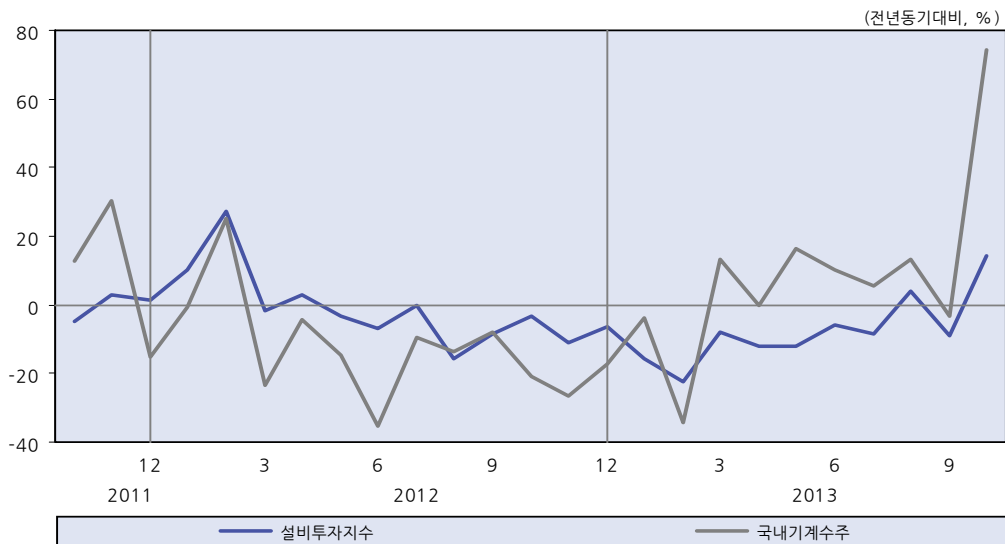
- 아울러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(106)보다 소폭 개선된 107을 기록하면서, 향후에도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

[그림 2] 소매판매액지수 및 소비자심리지수



- ◎ 설비투자: 설비투자지수가 증가로 전환된 가운데 관련 선행지표도 개선되고 있어 설비투자의 부진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
 - 10월 중 설비투자지수는 전월(-9.1%)의 감소에서 전년동월대비 14.2%로 급격히 반등하였으나, 이는 항공기 도입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
 - 한편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전년동월대비 74.4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향후 설비투자의 부진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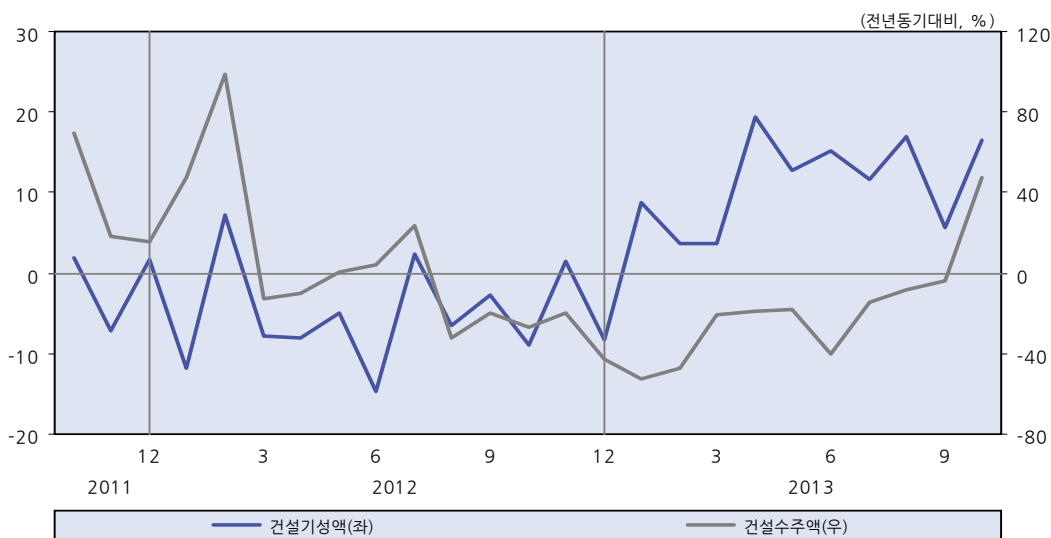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설비투자지수 및 국내기계수주



- ◎ 건설투자: 건설기성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동안 저조했던 건설수주도 큰 폭의 증가로 전환
 - 10월 중 건설기성은 전년동월대비 16.5%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
 - 건설수주는 전년동월대비 47.1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작년 2분기 이후 지속된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으나, 금년 중 건설수주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
 - 건축허가면적(5.9%)과 건축착공면적(15.3%)도 상업용과 공업용 부문의 실적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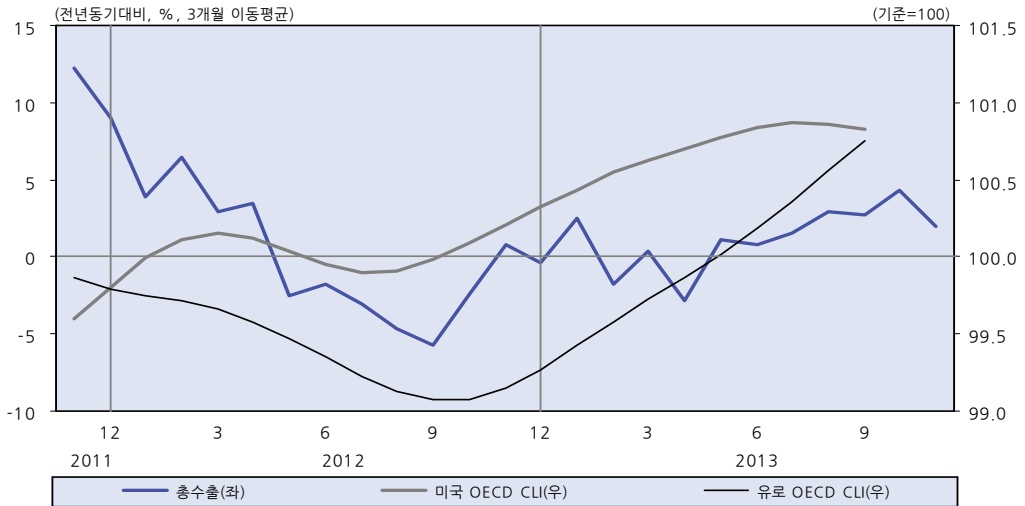
- 를 중심으로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
- 한편 아파트 거래는 전월(25.7%)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35.9%를 기록하며 최근의 증가세를 지속하는 모습

[그림 4] 건설기성액 및 건설수주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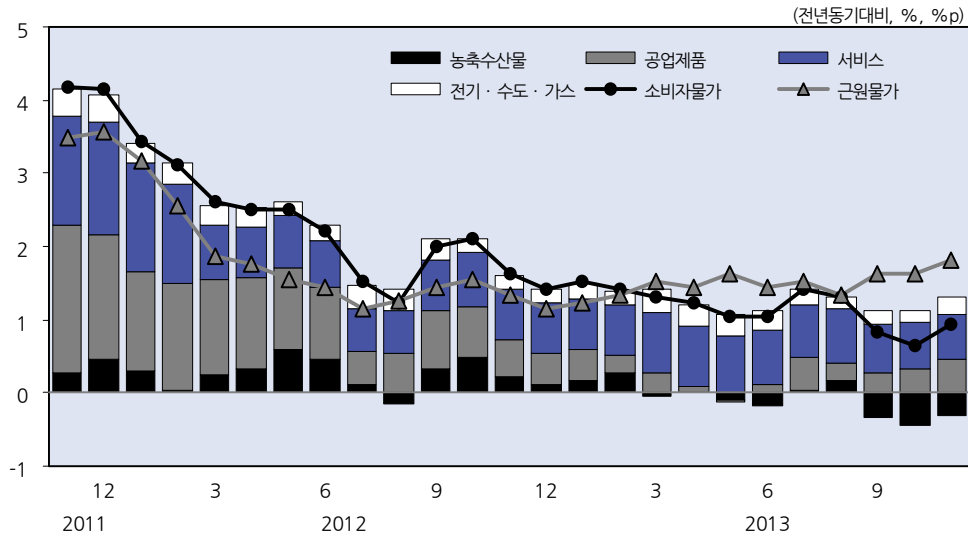
- ⊙ 수출 : 수출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기는 하였으나,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어 수출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 - 11월 중 수출은 전월(7.2%)보다 낮은 전년동월대비 0.2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, OECD 선행지수가 미국(100.8)과 유로지역(100.7)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선진국 중심의 수출 개선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
 - 수입은 주요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전월(5.2%)의 증가에서 감소(-0.6%)로 전환
 - 무역수지는 전월(48.8억 달러)에 이어 비교적 높은 수준인 48.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

[그림 5] 수출과 OECD 선행지수



- ◎ 물가: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매우 낮은 0.9%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,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%대 후반의 상승세를 지속
 - 서비스물가가 전월과 동일한 1.1%의 상승률을 유지한 가운데,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공업제품과 전기·수도·가스의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전월(0.1%)보다 높은 0.8%의 상승률을 기록
 - ※ 농축수산물 가격은 -3.7%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월(-5.4%)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
 - ※ 공업제품은 전월(1.0%)보다 상승한 1.4%의 상승률을 기록
 - ※ 전기·수도·가스는 전기료 인상이 반영되면서 전월(3.4%)에 비해 비교적 높은 4.6%의 상승률을 기록
 - 근원물가는 1.8%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월(1.6%)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
 - 한편 아파트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매매 가격도 3개월 연속 상승하며 각각 전월대비 0.7%와 0.3%의 상승률을 기록

[그림 6] 소비자물가 추이 및 부문별 기여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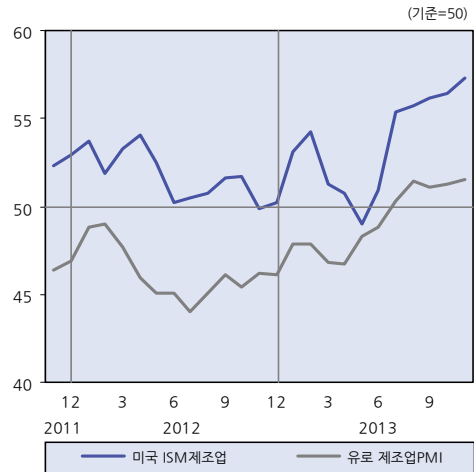
주: 부문별 기여도의 합은 반올림으로 총지수의 증감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
- ◎ 세계 경제 : 주요 선진국이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정책 관련 위험은 여전히 상존
 - 선진국은 일부 경제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, 미국이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유로존도 독일 등 핵심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물경기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
 - 신흥시장국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소폭 하회하고 있으나,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 등 주요 지표의 개선 추세는 유지

[그림 7]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



[그림 8]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심리지수



- 주요 전망기관들은 선진국의 완만한 실물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겠으나,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

※ OECD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하여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에 비해 0.4%p 하향 조정한 3.6%로 전망

[표 1] 주요국의 2014년도 경제성장률 전망(OECD)

(단위: %)

	세계	미국	유로	일본	중국	러시아	인도	브라질
2013년 5월	4.0	2.8	1.1	1.4	8.4	3.6	6.4	3.5
2013년 11월	3.6	2.9	1.0	1.5	8.2	2.3	4.7	2.2

자료: OECD, Economic Outlook, May·November 2013.